

‘마이 네임’도 심상찮다…공개 이틀만에 4위

〈세계에서 많이 본 TV쇼〉

아버지 복수 위한 딸의 고군분투
거칠고 사실적인 액션 인기 한몫
72개국서 10위권 34개국선 5위권
‘갯마을 차차차’도 TV쇼 7위 올라
英 BBC “최신 한국문화의 쓰나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글로벌 인기도 심상치 않다. 15일 전 세계 190여개 지역에서 공개된 뒤 빠르게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앞서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신드롬급 인기 등과 함께 “한국문화 쓰나미의 최신 물결”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18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마이 네임’은 17일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 4위에 올랐다. 공개 이틀만의 성과이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를 잃은 여자가 복수를 위해 마약 조직에 잠입한 뒤 다시 경찰로 위장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리며 누아르 장르물이다. 한소희, 박희순 등이 주연해 거칠면서도 사실적인 액션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간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고군분투하는 한소희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한 장면. ‘오징어게임’에 이어 해외의 시선을 끌어 모으며 한소희(오른쪽)가 연기한 캐릭터의 강렬함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캐릭터가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고 있다. 플릭스패트롤 차트를 보면 ‘마이 네임’은 모두 72개국에서 10위권 특히 절반가량인 34개국에서 5위권에 안착하며

16일 순위에 진입한 이후 자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6위에 올랐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고른 시선을 이끌어내 ‘오징어게임’과 같은 초반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던 기존 한국 콘텐츠와는 흐름을 달리한다.

앞서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83개국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가장 많이 본 TV 쇼’로 꼽히며 18일 현재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글로벌 ‘가장 많이 본 TV쇼’에는 ‘갯마을 차차차’(7위)까지 모두 세 편의 한국드라마가 10위권에 올라 있다. ‘마이 네임’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앞선 콘텐츠의 인기로 힘입은 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BBC는 최근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몇 년 사이 서구 지역에 퍼진 ‘한국문화 쓰나미’의 최신 물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케이(K)팝의 인기,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 등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서 “한국드라마는 수십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한국드라마를 접하는 해외 시청자층이 확대됐다면서 ‘오징어게임’에 이은 “또 다른 한국 드라마도 추천”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에스파 ‘새비지’, ‘빌보드 200’ 20위 진입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가 첫 미니앨범 ‘새비지’(Savag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20위로 진입했다. 빌보드는 18일(한국시간) ‘새비지’가 ‘빌보드 200’에서 20위, ‘톱 셀링 앨범’ 2위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데뷔 11개월 만”이라면서 “케이팝 걸그룹의 첫 앨범 가운데 빌보드 최고 순위로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한다”고 자평했다.

조정석·아이유,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



조정석

아이유

배우 조정석과 가수 아이유가 한국광고주협회(KAA)로부터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로 뽑혔다. KAA는 18일 “두 사람이 모범적인 광고모델로서 프로 정신이 투철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MBC ‘놀면 뭐하니?’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KBS 1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빅히트, 차세대 아이돌 발굴 글로벌 오디션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을 배출한 빅히트뮤직이 케이팝(K)팝을 이어갈 차세대 아이돌 그룹 발굴에 나선다. 빅히트뮤직은 12월20일까지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남성이란 국적, 거주지 등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지원자는 보컬, 랩, 댄스, 프로듀싱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1분 이상의 영상을 촬영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오징어게임’ 패러디 광풍

‘코빅’ ‘SNL코리아’ ‘런닝맨’ 등
패러디한 코너들 잇따라 선배
첼시 SNS에도 패러디 이미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TV를 틀면 곳곳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으스스한 로봇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각종 패러디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개그프로그램 tvN ‘코미디빅리그’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는 각각 ‘오징어게임’의 캐릭터를 패러디한 코너를 잇달아 선보였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도 17일 딱지치기와 줄다리기를 각종 게임을 응용한 ‘주꾸미게임’ 특집을 내보

냈다. 열기는 해외에서도 이어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는 공식 SNS에 달고나 뽑기를 하는 이정재의 사진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려 화제가 됐다. 서구권에서는 31일 독특한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관련 패러디 콘텐츠도 등장하고 있다. CNN 등 미국 유력 언론 매체들은 “‘오징어게임’이 하나의 대중문화 현상이 됐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패러디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도 궁금증을 드러낸다. 특히 ‘런닝맨’ 제작진이 “‘오징어게임’ 측에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밝힌 이후 온라인상에는 ‘패러디를 하려면 넷플릭스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방송 제작진은 ‘허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낮익은 레미 마렐(왼쪽)이 미국 코미디쇼 ‘SNL’에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장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는 ‘오징어게임’의 인형을 등장시킨 패러디 이미지(오른쪽)로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 ‘SNL’ 유튜브 영상 캡처·첼시FC SNS

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18일 넷플릭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작진이 세트, 의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공유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런닝맨’ 제작진은 한 회를 통째로 특집 구성하며 기획단계에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음악과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진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화제만큼 논란도 따른다. 17일(한국시간) 미국 인기 코미디쇼 ‘SNL’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라미 마렐이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코너가 등장했다. 출연자가 포털사이트에서 상금 40억원을 검색하자 미화로 47.89달러(약 5만6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장면 등이 “차별의 시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외식업 전문가의 분석! 해산물 요리가 대박 성공아이템

코로나 19 지속적인 불황에 장사가 안되시면 **해산물 요리집**으로 간편한 바뀔 성공하세요

- ✓ 초보자들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 반조리 식품이라 주방이 편하고 인건비가 저렴
- ✓ 남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하고 뛰어난 메뉴구성

330 만원으로 **OPEN**

맛, 메뉴, 가격에 놀라고! 매출, 수익에 놀라고! 회사 지원에 놀라고!
외식 창업이나 업종전환 하실분! 순간의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연해안 배우는 바다의 맛

포악 요리 오솔길

포악비빔밥

포악비빔국수

포악야채무침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500만원 지원!!**

부자되는 브랜드 가맹점 / 취급점 모집 문의 T.1588-3892